



금빛 물살 가르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일인 6일 경남 진주 남강에서 열린 조정 남자 일반부 예선 경기에서 선수들이 물살을 가르고 있다. 이날 광주는 김희관(한국체대 2), 전남은 이학범(장흥실고 2)이 싱글스킬부문에서 각각 예선 1위를 기록, 메달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진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목포~제주 국제요트대회

F1기간 20개국 50팀 참가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기간 중 목포~제주 구간에서 국제요트대회가 개최된다.

전남도는 6일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20여개 국 50여척의 요트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

23일과 24일 1박 2일로 진행될 외항 경주는 목포항→해남 화원반도→진도 조도군도→추자도→제주도 산지항을 항해하는 대회코스로 예정돼 있다. 전남-제주간 항로는 17시간~2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2일부터 목포항과 제주 산지항에서는 각각 내항 요트대회도 열린다.

이날 현재 대회 참가는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1개국 10여척으로 앞으로 참가국과 팀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dok2000@

# 체조 배가람 광주에 첫 금 선사



2010 경상남도 제 91회 전국체전

체조의 배가람(광주 체고)이 광주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전남 사이클의 이지은(나주시청)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배가람은 6일 마산체육관에서 열린 제 91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남고부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오르며 광주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전남은 사이클에서 3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5일 사전경기로 열린 3km 단체추발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던 나주시청팀이 6일 열린 단체 스프린터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5일 나이름의 24km포인트레이스 금메달에 이어 3번째 금메달. 이지은은 3km 단체 추발에 이어 단체 스프린터에서 금빛질주에 성공하며 동료 나이름에 이어 2관왕에 성공

전남 사이클 이지은 단체추발 이어 스프린터 금

메달도전 호남대 축구 한국국제대에 6대0 완승

했다. 나이름은 오전에 열린 3km 개인추발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지만 컨디션 저하로 단체 스프린터에 불참, 3관왕 등극에는 실패했다.

전남체고의 여고생 역사들은 전남에 동메달 3개를 안겨줬다. 최다혜는 58kg 용상과 함께, 김영은은 63kg 인상에서 동메달을 들어 올렸다.

메달에 도전하는 호남대 축구부는 경남의 한국국제대와 남대부 1회전 경기에서 6-0의 완승을 거뒀다. 전남을 대표한 초당대는 1회전에서 서울 광운대에 1-2로 패했다.

대회 둘째날인 7일 양궁월드컵 3관왕에 빛나는 기보매(광주시청)가 여자 일반부 60·70m에서 금메달을 겨냥한다. 이보나(우리은행)도 광주의 자존심을 걸고 사격 트랩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팔꿈치 부상으로 고전했던 전남의 '금빛 왕크' 이용대(삼성전기)는 조건우와 배드민턴 개인복식에서 컨디션 점검에 나선다. 국가대표 정나래(전남연맹)는 수영 평영 100m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한편 6일 오후 6시 진주종합운동장에서는 제91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성대하게 열려 열린 7일의 레이스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개막식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의 개회선언과 함께 사전행사 및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나눠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13년만에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선수단 2만3천876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41개 정식 종목과 당구와 산악, 댄스스포츠 등 3개 시범 종목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인다.

대회 9연패를 노리는 경기도가 1978명으론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꾸렸고, 광주는 39개 종목에 1231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13위를 노린다. 전남은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위해 44개 종목에 163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쌍둥이 인어쇼 기대하세요" 전남 레슬링 3형제 금메달 도전

■ 체전 뛰는 이색 선수들

전국의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체전의 이색 참가 선수들이 화제다.

전남 대표로 참가하는 김고 고등부의 정상용(순천금당고·1년)은 95년 9월 생으로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다. 대회 최고령인 공도 대표 최일랑(73·경북체육회)씨와는 무려 58살 차이가 난다. 최씨는 최고령 선수답게 이번 대회가 29번째 전국체전이다.

체육인 가족들도 눈길을 끈다. 광주대표 김고은·달은(20·HI코리아)은 쌍둥이 수영 자매다. 똑같은 외모의 두 선수는 실력까지 빼닮아 2년 전 대회 평영 50m 경기에서 동생 달은이와 언니 고은이가 나란히 1·2위 시상대에 올랐다. 이번에도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육상의 홍다미·다에(광주체고) 쌍둥이 자매도 전국체전 무대를 함께 밟는다.



김고은·달은 자매

쌍둥이 레슬링 3형제

이영연(함평군청)·주연(한국체대)·지연(함평골프고)이 그 주인공. 그러므로

만항에 출전하는 막내 이지연은 이번 대회 금메달 기대주이기도 하다.

배구 고등부 단체전의 이도원·대원(광주전자공고)과 핸드볼 남성육·성철(조선대), 그리고 '쌍둥이역사' 함상일·상준(한국체대)도 형제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이런쌍 쌍둥이인 배우 남고부 김진범(별교제일고)도 3남매 배우 선수로 유명하다. 형 김진환(조선대)은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에콜 뒤 뱅과 함께 하는 보르도 와인 특강'

## 2010. 10. 9(토) pm 2:30~4:30

Dourthe No.1 Blanc 2009, Bordeaux AOC, White / Thomas Barton Saint Emilion 2006, Saint Emilion AOC, Red Ch. Belgrave 2005, Haut-Medoc AOC, Grand Cru Classe / Essence 2003, Bordeaux AOC, Super Bordeaux

광주국제식품전에서 보르도 와인스쿨인 '에콜 뒤 뱅과 함께하는 보르도 와인 특강'이 진행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르도 와인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강으로,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세미나입니다. 와인 애호가, 소믈리에, 레스토랑 관계자,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세미나실(2층 207호)    참가신청 : www.winepartner.c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  
 인원 : 온라인 사전 등록 60명; 현장 등록 10명    입금계좌 : 우리은행 289-014377-12-101 ; 예금주 권홍식  
 참가비 : 2만원(사전 등록)/3만원(현장 등록)    문의 : 010-5746-0852 권홍식

http://cafe.naver.com/winepartne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 무인텔

###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